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國際地域學碩士 學位論文

# 부산화교의 자아정체성 연구

A study on Self-Identity of Chinese living in Busan



指導教授 金泰萬

2013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地域文化學科 尹正華

國際地域學碩士 學位論文

# 부산화교의 자아정체성 연구

A study on Self-Identity of Chinese living in Busan



2013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地域文化學科 尹正華

本 論文을 尹正華의 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013년 1월 7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배경과 목적 .....	1
1.2 선행연구 .....	3
1.3 연구 방법 및 구성 .....	5
2. 부산화교의 역사 .....	7
2.1 부산 화교의 역사 .....	7
2.2 현대 한국사의 질곡과 화교사회의 변천 .....	18
3. 세대 간 아이덴티티 차이의 양상 분석 .....	20
3.1 민족 인식 .....	23
3.2 세대 간 인식 .....	28
3.3 결혼 인식 .....	31
3.4 문화 인식 .....	36
4. 부산화교의 미래 .....	40
4.1 화교내부의 교류와 소통 .....	40
4.2 한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 .....	42
5. 결론 .....	45
참고 문헌 .....	48

## 표 목차

표 1	11
표 2	13
표 3	15
표 4	17
표 5	34
표 6	34



# 釜山华侨自我认同研究

尹正华

韩国海洋大学校 大学院 国际地域文化学科

## 中文摘要

本文通过采访资料对居住在韩国釜山华侨的民族意识、婚姻意识、文化意识的转变等问题进行了分析与研究。由最初第1代华侨延续到现在的第3、4代，经历了一百多年的历史。随着时间的推移，在韩华侨世代交替中，出现了自我认同、民族认同、国籍选择、婚姻认识等问题看法上的一系列转变。本文通过历史资料和采访资料对这些转变原因进行了分析和研究。

釜山的绝大部分华侨来自中国的山东省。最初是为了经商来到的韩国，并非移居。因此韩国文化与语言很难渗透到他们的日常且并不会太影响他们远渡来韩目的，他们被称为第一代在韩华侨。出生在韩国的第二代华侨生活在上述家庭里，对自身的认同和国家认识有着明确的态度，能说一口流利的中文同时具备一定程度的韩语能力，这是与第一代华侨最大的不同，同时他们在父母的熏陶与周边环境的影响下对于自己是一个中国人的信念是坚定不移的。（并且持有中国（台湾）国籍）但步入90年代之后，随着华侨与韩国人联姻比例的增加，华侨社会出现了一系列的变化。其中，华侨男性与韩国女性联姻比例较高，出生在这种婚姻状态下的第3、4代华侨，语言能力、中国传统文化的认识、国家形态意识不断削弱。此文对出现这种转变的原因进行了一系列的分析和研究，并通过分析和研究得出以下几个结果。

华侨3、4代不再秉承华侨1、2代的国家与民族意识，韩文化的渗透与同化日趋加深。第二，对于华侨与韩国人的联姻观大多持较开放与支持的态度。第三，对于国籍选择尊重子女的意见。第四，学习中文不再是为了继承中国的传统文化，逐渐转变成成为就业与生活的一项技能。



关键词：华侨，国家认识，民族认识，联姻，国籍



#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지리상으로 인접하고 바다와 육지의 교통수단으로 편리하게 왕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로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두 나라의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왕래를 해왔으며 이주현상도 자주 나타났다. 이런 이주현상이 양국의 문화에 많은 교류와 변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왔다. 전 지구적 자유화와 양국 간의 왕래에 따라 이주현상은 계속 존재해 왔고 양국 미래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을 총체적으로 화교라고 일컫고 있다. 화교라는 개념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로, 협의(狹義)의 화교(華僑)란 해외(海外)에 거주(居住)하면서 중국(中國) 국적(國籍)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 중국인(中國人)이다. 둘째, 광의(廣義)의 화교(華僑)란 본국(本國)을 떠나 해외(海外) 각처(各處)로 이주(移住)하여, 현지에서 직업적(職業的)으로 정착(定着)하고, 경제활동(經濟活動)을 영위하며, 본국(本國)과 문화적(文化的)·사회적(社會的)·정치적 측면(政治的側面), 또는 어느 한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 관계(關係)를 맺거나, 현지(現地)에서 동향(同鄉)단체를 통해 연관성을 유지하는 중국인(中國人) 또는 그 자손(子孫), 즉 혈통(血統)상의 모든 중국출신(中國出身)을 의미한다.<sup>1)</sup> 화교가 한국에 거주한지 벌써 한 세기가 지났다. 100년 넘게 한국에 정착하고 생활을 해왔지만 동남아 및 기타 나라의 화교에 비하여 인구수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이 뒤쳐진 편이다. 한국화교는 100년 동안 한국사회와 함께 지내왔고 많은 힘든 시기를 같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전통문화를 지켜

1) 李在正, <韓國의 華僑 居住地研究 -仁川地域을 中心으로- >, P1,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오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오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이때 한국과 중국 간 사람들의 이주와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수교 뒤 화교에 대한 정책이 전 보다 개선이 되었지만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화교의 중요성을 한국 정부에서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화교는 동남아나 미국 등 기타 나라의 화교처럼 경제의 주축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국내적 필요성과 국외적 압박에 의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화교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화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국화교사회도 수많은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그 중에서 인천과 부산은 항만 도시로서 화교들이 쉽게 상륙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도시들에서 1, 2세대부터 지금 3, 4세대까지 이어왔다. 한국사회에서 100년 넘는 시기를 생활해 오면서 화교 사회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지금의 화교 3, 4세대들은 1, 2세대와 다른 국가관과 정체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 화교 1세대들은 언젠가 한국을 떠나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전통적인 중화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생활해 온 화교 2세도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화교 3, 4세대로부터는 점점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국가관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중국어의 구사능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화교들이 점점 현지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화교들이 갈수록 자신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화교는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화교에 대한 연구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개항시기로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약 100년 넘는 시기의 역사 과정을 전개하면서 부산화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화교 1, 2세로부터 지금의 3, 4세가 국가관과 정체성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한국사회의 소수자이자 일원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해 나가기 위하여 발전된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화교와 한국인의 결혼이 원인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결혼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민

족인식, 생활습관, 언어습득, 국적과 자아인식 등에 대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통하여 화교 3, 4세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지금까지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화교 연구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화교역사, 화교정책, 화교교육, 화교의 정체성, 화교 단체 및 화교의 사회지위 변화 등 여러 면으로 연구가 되어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화교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신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오면서 동남아시아의 화교기업의 발전이 눈에 띄자 한국 내에서는 화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화교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산화교는 100년은 이주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부산화교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부산 화교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료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이종우의 “한국 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산화교가 현지화에 있어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 불편함과 차별된 정책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교의 귀화에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고 화교에 대한 복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고 화교학교의 학력인증과 이중국적의 취득 등의 문제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교가 더욱 편하게 한국에 현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영의 “한국화교의 정체성 연구 -부산지역

화교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08년)도 역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련의 설문자료 조사를 통하여 화교사회가 세대교차를 겪으면서 언어, 생활습관, 종교, 정체성 등의 여러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화교는 나름대로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진석의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변화와 사회자본화"(2009년)에서도 인터뷰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부산화교의 2 혹은 3세대들은 유대의 형성과 그것을 통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화교 공동체 내에서 최초의 구조적 지위가 높은 사례나 약한 유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유대에 배태된 자원에 접근하고 동원한 사례의 경우에 표출적 혹은 도구적 보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행위자인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구조적 특성 이외에도 문화적·정체적 요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진석(2009, P.150)

안미정의 "부산 화교의 이주를 통해 본 '전쟁'과 가족"(2008년)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전쟁'을 벌인 당시 일본이 화교 1세가 헤어진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동시에 생계기반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내용을 통해 발굴해냈다. 그리고 전쟁 후 가족과 친척들의 관계는 다시 복원됐지만 사회적 변화로 낯선 상황들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나면서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또 안미정의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2011년)는 인류학적 시점에서 인터뷰 사례를 통하여 일부분의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가족들은 가족을 단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성원의 개별적 이주로서 분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한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고향, 거주국, 귀속 국가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주현상은 동북아의 식민주의와 전쟁, 냉전체제 등의 요인으로 초래된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김나영의 "부산 차이나타운의 가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성과 국가주의 간의 길항"(2011년)에서는 부산의 차이나타운(상하이거리)을 중국풍 일색보다 '외국인 상가'들과 더불어 다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래야만 해양성과 개방성을 기초로 이루어진 부산의 독특한 문화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

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만의 저서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차이니스 디아스포라》(2009년)에서는 부산화교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열하였고 근대이후의 구(舊)화교와 신(新)화교를 다루면서 같은 민족으로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부산화교의 미래를 위하여 다문화가 공존하는 차이나타운 공간과 주민과 관광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욱이 소중한 것은 부산화교 여러 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인터뷰자료들이다. 이는 앞으로 부산화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필자는 김태만(2009)의 인터뷰 자료들을 인용하여 기존에 연구와 달리 화교들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거나 정체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보다 화교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인과 결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면서 후세들의 내부와 외부에 모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 1.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인터뷰자료를 주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내안의 타자 부산차이니스 디아스포라》(김태만, 2009)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인터뷰자료들을 근거로 필자가 제시한 관점을 입증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자가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1차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 국내 화교와 관련된 논문과 문헌, 인터넷, 신문자료들을 참고하여 2차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하려는 내용과 연구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2장에서는 부산화교의 정착과정과 역사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

째 장에서는 인터뷰자료를 통하여 부산화교 1, 2세와 3, 4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로써 변해가고 있는 3, 4세대의 민족인식, 자아정체성과 문화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다. 또한 네 번째 장에서는 화교의 미래에 성장과 발전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전반적인 총결을 지으면서 결말을 낸다.



## 2. 부산화교의 역사

### 2.1 부산 화교의 역사

#### 2.1.1 개항시기

부산에 화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초이다. 1876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1880년 원산(元山), 그리고 1883년 인천(仁川)으로 이어진다. 청국조계지(淸國租界地)는 부산(釜山), 인천(仁川)과 원산(元山) 등 3개의 항구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이는 당시 청국(淸國)이 해외(海外)에 설치한 유일한 조계지(租界地)이다.<sup>2)</sup> 1876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에 의해 개항장(開港場)인 부산의 무역과 상권(商權)은 일본상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치외법권(治外法權)으로 청상(淸商)의 활동은 상당히 저조하였다.

1883년 당시 일본영사는 일본상인의 무역독점을 위하여 부산에서의 청상인(淸商人)의 무역활동(貿易活動)을 제지(制止)하기도 하였다.<sup>3)</sup> 1883년 10월(고종 20), <덕흥호(德興號)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산에서 청상의 입지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덕흥호사건>은 일본 고베에서 공흥호(公興號)라는 무역 상점을 운영하던 청국 상인 황요동(黃曜東)이 부산의 일본 조계지 안(本町3丁目, 현재의 동광동 5번지)에 있던 일본인 다나까(田中平太郎)의 집을 빌려 덕흥호(德興號)라는 지점을 내려고 하자, 일본영사관이 이를 방해한 사건이다.<sup>4)</sup>

1884年 부산의 청상(淸商)은 덕흥호(德興號)에 4名, 건어도매상(乾魚都賣商) 3

2) 한동수 · 박철만, <부산 淸國租界地의 필자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P.268, 국제중국학연구 64권, 한국중국학회, 2011

3) 김중규, <韓國의 華僑 居住地 研究 - 仁川 地域을 中心으로->, P.12,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4) 김태만, 《내안의 타자 부산차이니스 디아스포라》, P.56, 부산발전연구원, 2009

名 등 14名이 거주하고 있었다.<sup>5)</sup> 그러나 청국 영사관의 보호에 힘입어 상주인구가 1886년 28명, 1905년 200여명, 1910년 365명, 1925년 542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sup>6)</sup>

진수당(陳樹棠)의 후임인 원세개(元世凱)<sup>7)</sup>는 1887년에 부산에 청국 조계지를 설립하여 조선 해관의 분기별 무역통계보고서를 청국 해관의 보고서 내에 포함시켜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에 종속시켰다. 이러한 청국의 조선 해관 지배는 화상의 수출입 무역을 거의 무관세로 이뤄지도록 했다.<sup>8)</sup> 한국 화교는 이주 초기에 청국군의 비호 하에 편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성장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부산조계지(釜山租界地)는 現 초량동(草梁洞) 일대로, 1889년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부산조계(釜山租界)는 봉태산(烽臺山)의 동남쪽(東南麓)을 동북진(東北進)하여 하나의 독구(禿丘)를 넘다 해안이 적은 평지에 사방 5정(丁)쯤 되는 곳을 지나(支那) 거주지(居住地)로 삼고 인가(人家) 100여호(戶)가 상업(商業)과 어업(漁業)에 종사(從事)하고, 당시 이사부(理事府)와 二, 三의 잡화전이 있을 뿐이라”<sup>9)</sup>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산의 청상 거류지는 적었으며 청상의 수도 매우 적었다. 1897년의 통계에 의하면 부산에 진출한 외국상사는 156사(社)였고 그 중 일본상사(日本商社)가 132사(社)고 청국상사(淸國商社)는 14사(社)였으며 그 밖에 외국상사(外國商社)는 하나도 없었다.<sup>10)</sup> 이로써 부산항

5) 김종규, <韓國의 華僑 居住地 研究 - 仁川 地域을 中心으로>, P.12,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6) 당시 화교는 인천을 통해 들어왔는데, 1903년 부산과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로가 열리면서 이들 지역의 유입이 늘어났다. 이들은 대개 수목, 미장이, 석공, 벽돌공, 대장장이, 철물 제조, 간장 제조, 표구, 폐탁, 이발업, 등의 기술을 가진 숙련노동자였는데, 토목인부, 짐꾼, 광부, 목독꾼, 머슴 등의 미숙련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인 중심의 초기 화교와 달리 노동자가 주축이 되었고, 실제로 일제의 잇따른 개발 사업으로 부산에서도 값싼 중국인 노동자가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장세훈, <부산 속의 아시아 부산 초량동 중화가의 사회행태학적 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구, 한국산업사회학회), 학술지널, 2009

7) 元世凱(1859.9.16 ~ 1916.6.6) 중국의 군인·정치가이며 총리교섭통상대신으로 조선에 부임하여 국정을 간섭하고 일본, 러시아를 견제했다. 청일전쟁에 패한 뒤 서양식 군대를 훈련시켜 북양군벌의 기초를 마련하고 탄쓰통 등 개혁파를 배반하고 변법운동을 좌절시켰다. 이후 의화단의 난을 진압했으며 신해혁명 때 청나라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임시총통이 되었고, 이어 스스로 황제라 칭하였다.

8)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P.21, 삼성경제연구소, 2004

9) 韓佑旆, 展開書, 朝鮮彙報(朝鮮紀行), 東邦協會, 明治26年, 김종규, <韓國의 華僑 居住地 研究 - 仁川 地域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재인용, 1993



의 무역은 전적으로 일본상인의 손에 장악되어 왔던 것이다.

부산해관세무사 백여(帛黎)<sup>11)</sup>의 보고에 의하면 청상이 부산에 적게 진출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항의 구례(舊例)에 따라 민간의 상품거래는 대부분 화물(貨物)로 교환되었으며 일본인은 여기에 온지 오래 되었고 게다가 원주민(原住民)들과 왕래(往來)하면서 이미 편리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청상(淸商)은 여기의 상업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둘째, 부산에서는 일본은행 이외의 은행은 일본은화(銀貨)를 전용하였다.

셋째, 부산에서 수출한 원금(原金)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일본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에 청상(淸商)이 토지금액을 교환하여 본국으로 가져가면 약간의 손실도 있었다.<sup>12)</sup>

이와 같이 당시 부산에서의 일본세력이 강화되어 일본인이 부산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청상들이 부산에서 상업을 펼쳐나가기에 힘들었고, 이로 인해 부산에는 청상들이 매우 적었던 것이다.

부산시사(釜山市史)의 기록에 따르면 조계지역(租界地域)의 형태가 장방형(長方型)으로, 동(東)쪽은 해변을 따라, 서(西)쪽은 산허리를 따라 각기 314m이고, 북(北)쪽은 산허리에서 해변까지 303m, 남(南)쪽은 275m라고 기술하고 있다.<sup>13)</sup>

이 안에는 주인 있는 묘 49기, 주인 없는 묘 2,309기 등 분묘가 있었지만 이것은 동래부가 철거하기로 하고, 전답은 모두 청국 상인이 매수하기로 했는데 전답 가격은 3,278냥이었다. 조계지의 전답을 매수한 부산 화교 농민<sup>14)</sup>은 비교

10) 趙璣瑤, <韓末의 國際貿易>, P.132, 經濟協會, 日併刊號, 1972

11) 백여(帛黎) (A. Théophile Piry, 1850年-1918年) : 청말 시기 중국우편국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프랑스인이다. 백여의 일가(一家) 3대가 모두 중국의 해관직무에 취임했었다.

12) 추미란, <在韓 華僑의 企業經營에 대한 實證的 研究>, P31,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기업관리전공, 석사 학위 논문, 1976

13) 《釜山市史》, P.798,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14) 부산 화교 농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평지가 적고 허가된 지역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률이 높았다. ② 윤작을 철저히 함으로써 토지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 ③ 과학적인 경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었지만 실패도 없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에 이주해 온 비천한 출신의 일인에 비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았다. ④ 가구마다 양돈(養豚)·양계(養鷄)등의 부업이 있었다.

적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화교 음식점과 일본인에게 채소를 공급했다.<sup>15)</sup> 청상들이 농업에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90년에 164명의 화교(華僑)가 거주하였고 이듬해 138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청일전쟁이 끝난 1897년에는 47명으로 감소하였다.<sup>16)</sup> 부산에 청상이 저조한 원인은 또 대부분 훈춘, 상해, 일본, 원산, 한성 등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장기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즉 당시 청상에게 부산항은 배나 기차를 갈아타기 위한 항구로서의 의미가 더 컸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이로써 자연스럽게 청관마을이 형성되고 화교들이 오가면서 거래를 하고 머무는 터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일 전쟁이 끝나자 청국상인들은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지리적·역사적 배경에 의해 청국의 세력은 상권뿐만 아니라 외교의 지위, 따라서 토지 문제에 있어서 청(淸)은 일본 세력에 대항 할 수 없는 판국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일영사(日領事)는 청조계(淸租界)의 토지, 가옥(家屋)까지도 일본의 소유임을 고집할 경우까지 되었다.<sup>18)</sup>

청상들의 거주지는 일본 세력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철저한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인천을 통해 청국의 특산물과 잡화를 가져다 팔면서 이에 따라 인구도 차츰 늘어나게 되어 1897년 47명이었던 청인 수가 1905년에는 200여명, 1909년에는 338명까지 증가했다.

---

김종원, <부산의 도시 성장에 대한 역사 지리학적 고찰 : 개항~해방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6

15) 김태만 위책, P. 58

16) 김중규, <韓國의 華僑 居住地 研究 - 仁川 地域을 中心으로->, P.13,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7) 김태만, 위책 P.58

18) 李東旭, <開港以後 釜山の 租界地에 關한 考察>, P.41,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2.1.2 식민지시대(1910~1945)

1910년 <한일합병조약(韓日合併條約)>에 의해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화교의 지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총독부는 8월 29일 한국 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조치로 제령 2호를 발표하여 인천, 부산, 원산, 청국 거류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화교는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할 수 있었고 화교 거주자는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이를 매매할 수도 있었다. 단 일본이 정한 과세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청국조계지는 30여년 만에 제반 행정상의 정리와 지방 제도의 정리로 1913년 3월 폐지되었다. 이는 화상이 조계지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짐을 의미하지만 구 조계지는 화교의 집단 거주지로 유지되었으며 상기의 화교의 제 권리도 보장되었다.<sup>19)</sup> 그나마 토지소유권이 인정을 받고 금지된 상품을 제외하고 다른 물산과 제조품을 팔매할 수 있어서 화상의 상행위가 보장받을 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일강제합병 직후 10년 간의 화교 인구 증감을 나타내는 아래의 도표를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표 - 1> 釜山府居留支那人年度別戶口變化表(1910 - 1923年)<sup>20)</sup>

區分	明治43	明治44	大正1年	大正2年	大正3年	大正4年	大正5年	大正6年	大正7年	大正8年	大正9年	大正10年	大正11年	大正12年	
서기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戶數	50	34	46	43	36	47	40	38	45	41	47	49	57	72	
人口	男	-	-	175	180	36	189	149	161	151	162	211	217	239	310
	女	-	-	35	31	149	21	21	26	36	29	15	14	18	23
	計	356	168	210	211	170	210	170	187	187	191	226	231	257	333

19) 양필승 · 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 한국 화교의 경제의 어제와 오늘》, PP.31~33 삼성경제연구소, 2004

20) 한동수 · 박철만, <부산 淸國租界地의 필지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P.270, 한국중국학회, 학술저널, 2011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강제 합병 직후 격감했던 화교수는 계속 저조세를 유지하다가 1922년 부산 2부두 매축공사로 중국 산둥성(山東省)지방에서 들어온 노동자 수백 명이 부산에 들어오면서 부산의 중국인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의 피로와 질병 등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지금의 초량동 16번지의 저수지 동남쪽에 중국인 묘지가 생겨났다.<sup>21)</sup> 중국 노동자의 급증으로 조선인들이 중국 노동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초기의 중국 노동자는 단순노동에 종사했지만, 대공황이 일어난 1929년 이후 조선인 노동자를 대신하여 공장에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에서였다.<sup>22)</sup> 일자리를 잃은 조선인들이 중국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증가추세였던 화교 인구는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은 1931년 7월 2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현(長春縣) 만보산(萬寶山)지역에서 일제의 술책으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벌인 유혈사태이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중간에서 조작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중 양국의 충돌을 일으켜 이로써 양국 관계를 이간하여 대립이 되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한·중 양 국간의 노력으로 오인을 해명하고 진정성을 호소하는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을 평정시켰다.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으로 부산 화교들은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화교 배척의 분위기 속에서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껴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1937년 “7.7사변” 즉,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으로 대량의 화교들이 다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이는 1945년 2차세계대전(二次世界大戰)까지 지속되었다. 소수의 화교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호떡집과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 시기의 화교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시기에 화교 사회가

---

21) 김태만 위책, P.61

22) 전우용, <한국 근대의 화교 문제>, P.394, 한국사학보 제15호, 고려사학회, 2003

형성되는 시기이다. 둘째, 화교는 요식업, 약방, 무역 등 상업을 많이 해왔지만 이어 농업을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삼는 화교도 많았다. 셋째, 이시기부터 배화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는 일본이 식민자(植民者)로써 중간에서 이간하여 초래한 결과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시기로부터 화교와 한국이 함께 반식민 통치(反植民統治)의 투쟁을 대항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 2.1.3 해방과 한국전쟁기

1945년 중·일 전쟁이 끝나고 중국의 해방은 한국 화교에게 큰 환희를 가져왔고 경제가 다시 한 번 활성화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그사이 오랜 시기동안의 전쟁을 겪었고 따라서 자원의 결핍으로 전국의 소비물품을 공급하는데도 부족했다. 이런 시기에 화상들은 홍콩(香港), 상하이(上海), 옌타이(煙臺), 칭다오(靑島), 텐진(天津), 다롄(大連) 등 거래관계를 지속해온 지역들을 통해서 조선인민에게 상품을 제공했다. 《朝鮮年監》에 의하면 1946년 한국의 수입상품의 82%가 중국으로부터 들어갔다.<sup>23)</sup> 아래의 도표에서 말해 주듯, 40년대 말 한국의 화상도 동남아나 기타 나라의 화교처럼 현지의 경제 주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 2> 韓國 輸出入 및 韓中貿易(1946, 1947)<sup>24)</sup>

年度		總額	對中貿易	中國貿易比率
輸出	1946	47,699,922	38,000,000	82%
	1947	-	1,508,411,010	53%
輸入	1946	168,406,057	159,204,915	84%
	1947	2,088,125,206	941,269,434	45%

화교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청관거리에도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23) 詹小洪, <韓國華僑의 今昔>, 海外史, 炎黃春秋2004年第7期, 2004

24) 박경은, <華僑의 定着과 移動 : 韓國의 境遇>, P.5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1

운 건물이 증축되기 시작하고, 중국음식점이 10여 곳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부흥도 잠시, 중국 대륙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격화되는 상황이었고 1947년, 한국에 중화민국대사관이 설치되면서 화교들은 자연스럽게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한국 화교 경제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시기 부산 화교경제는 활발하게 발전을 했다.

부산에 화교들이 대폭으로 몰려드는 시기는 6·25 전쟁 때였다. 1950~1953년까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 전쟁을 피해 전국의 화교들이 부산으로 몰려옴에 따라 부산 화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났다. 피난민들이 모두 초량동 청관거리로 오면서 그 수용 인원을 넘어서자 한국 정부와 대만대사관임시판공처는 화교 사회 소유의 초량 청관거리 뒤편 영주동 공동묘지 자리 1,300평에 충효촌(忠孝村)을 설치해 1,000세대 이상의 화교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생활하게 했다.<sup>25)</sup>

한국전쟁으로 화교 대거 부산으로 피난 오면서 한국정부가 '부산화교 자치구'를 일종의 자치 정부로 인정하고 당시 화교자치구에서는 일부 화교들이 합법적으로 충을 소지하고 관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량의 화교 유입이 한 곳에만 머물 수가 없어 영주동에 충효촌, 서면 일대의 신의촌, 황령산 방면에 인애촌 등에도 화교촌이 형성되었다.

1953년 말 현재 중앙동 일대에 있었던 부산역전이 대화로 불타 없어진 후 초량동 청관거리 맞은편으로 옮겨오면서, 일약 신흥 도심지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옛 부산역 앞 중앙동에 위치한 텍사스촌도 청관거리 옆으로 옮겨왔다. 비록 전시상황에서 화교의 경제적 손해가 30억 원을 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고, 또 외제 불법 유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외화 배당을 제한하는 등 경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화교의 교역활동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텍사스촌의 이전은 외화가 흘러나오는 환락가였던 탓으로 인근 중화가의 경제가 되살아나는데 활력을 더해주었다. 이들 두 지역은 외국인 거리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생각 될 수 있다.

---

25) 김태만 위책, P.66

부산일보에 의하면, 1960년 때만 해도 청관거리에는 화교들이 대거 모여 살았다. 특히 6.25 한국전쟁 후 서울과 인천에서 피난 온 화교들이 모여들면서 한때 이곳 초·중·고교에는 학생 수만 3천여 명에 달했다.<sup>26)</sup> 이처럼 부산은 또 한국 화교들에게 전쟁 속에서 이동의 거점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표 -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8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500명도 채 되지 않은 부산화교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원래의 전국 구성비의 2.3%에서 23.3%로 급증했다.

<표 - 3> 해방 후 부산 화교 및 대만국적 외국인수<sup>27)</sup>

연도	전국(명)	부산(명)	구성비(%)
1948	17,430	493	2.8
1952	17,925	4,182	23.3
1958	-	3,632	-
1962	23,575	3,705	15.7

이 시기 다른 지역의 화교들은 핍박과 경제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었지만 부산 화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 화교들은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고, 텍사스촌지역의 쇠락과 함께 청관거리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 2.1.4 종전에서 한·중 수교까지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현지의 경제와 생활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다. 당시 냉전체제 하에 한국과 중국은 외교관계를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인구 유동이 거의 없었으므로 화교의 인구도 급감했다. 과거에는 화교가 중국내륙과 한국 사이에서 무역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이런 경제활동들이 거의 중지되었다. 이때 한국정부에서는 재한 화교에 대하여 많은 규제를 실시하여 화교들이 아주 힘든 곤경에 빠졌다.

26) 윤여진 <초량부두 '청관거리' 120년 역사 품고 '상해 거리'로 변모>, 부산일보, 2010, 1, 6

27) 안미정,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P.15, 역사와 경제, 부산경남사학회, 2011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되면서 한국은 중국 본토와 무역이 단절되었다. 화교 경제는 중국 대륙에서 물자를 수입한 다음 이것을 화상들이 국내에 판매하여 운영되는 경제였기 때문에 중공의 수립은 한국화교에게 큰 타격이었다.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곳은 홍콩, 중화민국 밖에 없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광둥(廣東)과 복건(福建) 출신인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어 산둥출신인 화교들이 끼어들기가 힘들었다. 1948년의 <외국인 외환규제법>이 규정되면서 이는 명백한 화교 배타정책이다. 국제무역을 위한 외화를 한국인은 받을 수 있었지만, 화교는 혜택이 없어 암시장을 이용해야 되었다. 암시장의 환율은 은행보다 2배 이상 비싸 화교무역상의 수익은 줄어들었다.<sup>28)</sup> 그리고 1950년 초에 수입상품의 불법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창고 봉쇄 조치는 물건 보유량이 많았던 화교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1961년 제정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이 만들어 지면서 화교들의 토지소유를 전면 금지했고 이로 인해 화교들의 집과 토지는 몰수당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화교들은 한국인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지인의 배신으로 재산을 잃은 화교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정책과 조치는 화교가 제조업, 농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에서조차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비록 1968년에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면서 거주용은 200평 이하, 상업용 50평 이하 토지를 외국인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다시제정 하였으나 영업이나 기타 목적(공장, 농지, 임야)으로는 소유가 불가능하고, 임대 또한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토지 재산권의 제한은 화교의 재산증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화교의 농업, 제조업, 무역업 등 분야의 진출에 각종 규제나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견제하기 때문에 화교들은 요식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에 머무르게 되었다.

1970년 대 초반에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목표로 한 중국음식 가격 제한조치, 쌀 소비 절약을 위한 중국음식점의 밥 판매금지 조치, 음식점에 대한 인정과세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sup>29)</sup> 화교들의 불만과 저항으로 3개월 만에 폐지되었

28) 이용재, <한국의 대화교정책과 배제의 역학>, P.415, 중국어문학논집, 제72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29) 이종우, <韓國 華僑의 現地化에 관한 研究 - 釜山 居住 華僑를 中心으로>, P.46, 동아대학교 동북아 국



지만 이는 역시 화교들의 경제활동을 견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밀어내려는 기세를 알아볼 수 있다.

<표 - 4>을 보면 1958년 전국적으로 1,702호였던 요식업자가 1964년에 2,307호, 1971년에 2,500호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화교들의 요식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에 2,121호, 1976년에 2,100, 1977년에는 2,000호, 1979년에 1,800호, 1980년대 1,721호로 요식업을 종사하는 화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1977년 정부의 부가가치세 실시로 대부분의 중국음식점은 국세청 단속에 걸려 거액의 금액을 물어야했고 이는 화교1세들이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표 - 4>1958년~1989년 중국인 요식업 진출자<sup>30)</sup>

연도	음식점수	연도	음식점수
1958	1,702	1979	1,800
1964	2,307	1980	1,721
1971	2,500	1983	1,570
1972	2,454	1984	1,117
1975	2,121	1987	900
1976	2,100	1989	1,570
1977	2,000		

이 외에 부산 화교와 동거동락하던 텍사스촌지역의 쇠락과 함께 청관거리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텍사스촌의 주요고객이던 부산 주둔 미군이 격감하고 외항선원의 출입이 줄어들자 전성기에 20여 곳이었던 주점들 중 몇 점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다. 그 결과 텍사스촌은 인근 청관거리를 동반 추락시키는 슬럼이 되고 말았다.

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30) 양필승, 이정희, 위책 P.86

## 2.2 현대 한국사의 질곡과 화교사회의 변천

중국인의 이주는 천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화교(華僑)로 지칭하는 이주 역사는 불과 백년이다.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생하여 조선의 고종(高宗)황제가 청정부에 구원을 청하였다. 그래서 청정부에서는 오장경(吳長慶)장군을 파견하여 반란을 평정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당시 청군을 따라 40여명의 화상(華商)도 함께 왔다. 기록상에서 보면 이는 화인(華人)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조선과 청나라 간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인천을 화상(華商)의 조계(租界)로 설립하여 화교들이 대량으로 늘어났다. 그 뒤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화교가 양국 사이에서 많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강한 생활력으로 고통을 무릅쓰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1927년 서울, 인천에 분포해 있던 화교 무역 상인들은 주로 비단, 옷감, 면화, 양식, 고추, 마늘 등 각종 토산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후 다시 한국의 전역으로 판매했다. 이시기가 화교의 경제활동이 가장 막강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그러나 1930년 후 일본의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자 일부 화교들이 불안감을 시달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1931년 일본이 중국의 지린성(吉林省)에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을 빚어냈다. 이 사건은 일제의 술책으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벌인 유혈사태이다. 이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지자 한국에서 배화운동이 일어나 화교들의 재산피해와 유혈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總督府)는 대량의 화교를 송환시키는 지시를 내렸다. 겉으로는 화교를 보호하기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화상을 몰아내고 화인이 한국에서의 경제적 힘을 감소하기 위한다에 있다. 1945년 일본이 전패한 뒤 중국과 한국은 불안정 공황상태에 처해 있었고 따라서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하면서 한국과 대륙은 단교되면서 화교가 내륙과의 경제루트가 끊어지게 되어 힘든 상황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1961년 박정희(朴正熙)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의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화교 경제는 상응한 발전을 갖지

31) 한국화교 총상회 한국화교의 역사 자료 인용. <http://www.kcci.or.kr>

못하고 오히려 쇠퇴의 추세였다. 당인(唐人)거리는 하나씩 사라지고 화교들도 이어 이민을 떠났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토지법(外國人土地法)>을 재편하여 화교들이 토지를 구매하는데 더욱 까다로워졌다. 화교들이 정책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경우 자체 사용은 되는데 셋방을 낼 수 없다. 그리고 화교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세금을 높였고 게다가 가게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더 높았다. 또 화폐폐지로 화교들이 심한 타격을 받아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sup>32)</sup> 1992년 한·중 수교이후 한국과 중국 간 사람들의 이주와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양국이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하면서 문화교류에서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정부는 화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인식을 하면서 화교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화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

32) 晁中辰, “旅韓華僑華人的歷史與展望”, 當代韓國, 山東大學歷史文化學院教授, 2000

### 3. 세대 간 아이덴티티 차이의 양상 분석

필자는 김태만(2009)에 수록되어 있는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인터뷰는 주로 화교 2세대를 상대로 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필자가 다시 화교 2세대의 두 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화교 2세대에서 화교 3, 4세대로 넘어가면서 변화하고 있는 화교사회를 볼 것이다. 이번 면담 대상자는 현부산화교협회 협회장 총용자(叢湧滋)협회장과 화교중학교 교장선생님 범염명(范延明)교장선생이다. 이 두 분은 모두 화교 2세대이다. 총용자(叢湧滋)협회장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모두 중국 산둥성(山東省) 출신이며 부인은 대만인이고 아들과 딸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다. 총협회장은 부산화교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 약대에서 졸업했고 가족 모두 중화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 범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화교학교를 졸업하고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부인도 대만인이고 큰 딸은 결혼해 대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은 딸은 중국 광둥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모두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화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

이 두 사람을 인터뷰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총용자는 화교 2세로 부산화교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 약대에서 졸업을 했다. 그리고 화교 1세의 전통적인 영향 하에서 생활해 왔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지금은 부산화교협회의 협회장으로 부산화교에 대하여 보다 잘 알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고민해 온 사람이다. 부산화교의 과거와 지금을 함께 겪으면서 세대의 변화도 함께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3, 4세대의 정치관이나 국가관, 그리고 언어의 습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산화교의 앞으로의 존속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신문 기사를 통하여 추측하고 있다.

부산화교중학교의 범교장을 인터뷰하게 된 원인은 화교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 화교가 있는 곳이면 화교학교가 있을 만큼 중국 사람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습득의 존속에 대하여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 부산화교의 앞으로의 발전과 미래를 보려면 지금 부산화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화교 3, 4세들을 통하여 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필자가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조 대대로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출생해 살아간다. 그래서 선조의 라인 '조국'과 조상의 언어인 '모국어'가 '자아(自我)' 속에서 행복한 화해(和解)를 이룬다. 그들에게 '조국'과 '고국'과 '모국'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모어'와 '국어'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의·식·주 문화 속에서는 의식과 존재의 괴리나 혼란도 찾아보기 어렵다.<sup>33)</sup> 그러나 외부의 압력으로 일부의 소수 집단이 끊임없이 자아정체성에 대하여 확인해야 했고 주변에서 이종을 대하듯 한 시선들을 늘 감내야 했다. 이러한 이주현상은 스스로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강박되어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화되거나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베리(Berry, 1997)는 문화적응을 두고 두 가지 주요 질문에 따른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였다. 두 가지 질문이란, 첫째, 문화 유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장하고, 그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 접촉과 참여에 관한 것으로 다른 문화적 집단에 포함되거나 그들 사이에 체류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참여한다면 통합(integration),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현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리(separation), 자국의 문화와 현지 문화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볼 수 있다.<sup>34)</sup>

33) 김태만 위책, P.18

34) Berry, D. T.,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1997, 이범수, <인천 화교의 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 P.7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재인용

화교의 2세대인 경우만 해도 자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문화적응과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자아정체성의 인식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화교 3, 4세대를 주변의 환경보다 자기 스스로 자아정체성에 대하여 인지하는 동시에 판단을 하게 된다. 부모들도 더 이상 강요하고나 각인시키는 경우보다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위의 인터뷰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갈수록 현지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과학자들은 소수 집단이 거주국에 동화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써 인종 간 결혼을 사용해 왔다.<sup>35)</sup> 인종 간 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같은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출생 국가나 문화가 다른 집단 간의 결혼까지도 인종 간 결혼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종 간 결혼은 다음 세대에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특징을 전수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민족의 경계 유지와 민족 집단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이민자가 거주국의 사회와 문화에 접근하는 기회를 극대화하며(Qian et al 2001; 이성우, 2006; 이성우外, 2002, P.132), 인종 간 결혼은 사회적 거리와 구조적 동화에 대한 척도로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Alba and Goldon, 1986).<sup>36)</sup>

앞에서 서술한 인터뷰를 통하여 화교 2세대부터 화교 3, 4세대로 이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결혼문제에 있어서 화교 2세대 때는 보통 집안 양가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와 달리 화교 3, 4세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화교와 한국인이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화교 2세대가 후세(3, 4세대)들의 교육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현지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의 범교장의 인터뷰에서 보면 지금 일부의 부모가 화교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것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35) 이성우·고금석·류정호, <인종간 결혼의 결정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P.131, 한국사회학 제36집 제6호, 한국사회학회, 2002

36) 이종우, <한국 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 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 >, P.14,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배우기 위한 것보다 현재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화교 3, 4세대들은 모어가 한국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져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가기 전에는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별 다른 고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외부와 접촉하면서 밖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화교라고 인식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다. 그리고 화교학교에서 중국과 같은 전통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성장해 왔지만 중국이나 대만에 가게 되면 같은 중국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한국의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왔지만 역시 한국 사회에서도 화교들을 순수히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교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갈수록 화교들도 자기의 신분을 감추거나 한 쪽으로 치우쳐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화교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화교의 특성도 갈수록 퇴색하게 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화교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이덴티티 차이를 민족인식, 세대 간 인식, 결혼 인식, 문화 인식 등 네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3.1 민족 인식

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족 자신에 의한 자각, 또는 집단에 의한 인식을 계기로 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또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가리키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복, 언어, 가옥형태, 일반적 생활양식 등의 명시적인 것도 있고 추상적으로는 가치관·윤리관·행위기준 등 문화내용적인 것도 있다.

최초의 화교 1세대들이 한국으로 돈 벌러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시 고

향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려 하지 않고 자식들의 교육이나 한국인과의 교제와 결혼에 대하여 반대를 많이 해왔고 자기들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비록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름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유인 : 우리학교에 들어오면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조회하면서 우리(대만) 국가를 부릅니다. 국기를 하나 더 올립니다. 날마다 국가를 재창합니다. 사실 대만에서도 그것은 안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대만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초빙되어 오셔서 민속 무용 같은 것을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우리 하는걸 보면 깜짝 놀래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별로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날마다 아침에 국가를 재창하고 연주하면서 국기를 올립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조그만 화교학교지만 우리는 정통성이 있고 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sup>37)</sup>

이유인 : 한 아이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학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명이라도 교육시킵니다. 저희 화교들은 10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살아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없다면 우리 중화문화를 전차할 수도 없고 이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화교 분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마는 우리 중화문화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교 학교이기 때문  
에요.<sup>38)</sup>

학교라는 공간은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의 전통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을 이어나가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이유인이 "우리학교에 들어오면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조회하면서 우리(대만) 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 아이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학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명이라도 교육 시킵니다". 화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중화사상과 문화를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학교의 건설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서 화교들이 후세대의

37) 이유인 : 1950년 1월 24일 서울 출생. 대만국적. 화교2세대. 現부산화교소학교 교장선생님. 김태만 위책, P. 222

38) 김태만 위책, P. 223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도 있다. 그러나 화교들도 세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민족적 인식에 대한 긍지감과 인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염명 : 우리 화교 1, 2세는 자기가 중국인이라 확신하지만 이런 개념은 화교 3, 4세들에게 있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가 한국인이라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화교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다 하기보다 앞으로의 필요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나 대만으로 유학을 가거나 회사취직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니고 있죠. 민족의식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 우리세대는 아주 강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치 한국인과 같은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총용자 : 몇 십년 전에 한국 사람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농구시합을 하게 되면 누구의 편을 들거나 하는 질문에 우리는 겉으로는 한국의 편을 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중국의 편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화교 3,4세 들은 국가개념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선수의 팀을 응원하죠. 중국선수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한국선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동시에 그 팀을 응원해요. 부산의 야구 선수를 좋아하면 그 선수와 그 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그 선수가 일본 팀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팀을 응원한다. 지금의 3,4세대는 정치관이나 나라관보다 자기 스스로의 취미나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만약,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나라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면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된다. 아주 자기중심적이다.

우덕호 : 제가 보기로는 넓은 의미로 볼 때 화교도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지요. 단지 화교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생각 자체에 문화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두 가지 입장에 있을 때 더 좋은 쪽을 취합니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하죠. 국적이 한국국적이라고 해도 문화적으로는 중국 쪽으로 가고 그런 게 있어요. 39)

화교 3, 4세대로 이어오면서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문화와 더 많은 접촉을 하면서 한국 대학의 진학과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한국사회에 맞물리면서 점차 동화되어 가고 있다. 범염명이 "지금 학교 다니고

---

39) 김태만 위책, P. 173

있는 학생들도 자기가 한국인이라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화교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다 하기보다 앞으로의 필요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라는 화교 3, 4세들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었고 총용자는 "지금의 3, 4세대는 정치관이나 나라관보다 자기 스스로의 취미나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라는 관점으로 지금의 화교 3, 4세대들은 민족정신이나 국가관을 떠나서 아주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화교와 한국인이 결혼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국적의 취득이 쉬워지면서 화교들의 동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지금 화교사회를 이어가야 할 주축인 화교 3세대들이 이러한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면서 정체성이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화교 2세대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어떤 화교는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를 거치면서 동화되어 간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하고 있다. 우덕호는 "제가 보기로는 넓은 의미로 볼 때 화교도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지요"라고 화교들도 갈수록 후세들이 현지사회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덕호 : 지금 그런 문제(화교 3, 4세대들이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화교청년회 회장을 했었는데요. 제 위에 계시는 분하고 저하고 제 아래, 제 아래 있는 화교 청년회가 있는데 그 회원들하고 같이 있어보니까 화교사회에 대한 관심(마인드)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화교단체에 참가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죠. 옛날에는 한국사회하고 분리되어서 나름대로 화교사회라고 해서 정신과 정력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뜻이죠.<sup>40)</sup>

우덕호 : 저희 동창들만 봐도 거의 한국학교 보냅니다. 반 이상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때, 저희 동창 중에 영도에서 비비큐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국여자와 결혼해 애를 세명 낳았는데 화교학교(정부지원없음) 보내면 한 달에 학비만 100만 원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학교는 무료잖아요.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화교들도 혜택을 받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굳이 한국사회에 사는 가정에서는 화교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교들이 다 화

40) 우덕호 : 1969년 7월 14일 부산 출생. 대만국적. 화교 3세대. 現 부산외대 중국지역통상학과 겸임교수. 김태만 위책, P. 170

교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sup>41)</sup>

앞의 인터뷰자료에서 우덕호 "우리(화교 3, 4세대)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화교단체에 참가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 보면 화교 3, 4세대들은 갈수록 화교집단 내에서 대대로 이어온 화교단체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고 한국사회에서 굳이 이런 단체에 참가하고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존속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통문화와 언어의 습득이라고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화교의 이중국적 취득의 정책변화와 한국사회에 적응한 화교들은 한 달에 돈을 들여 화교학교에 보는 것 보다 혜택을 받으며 한국학교에 보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덕호는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화교들도 혜택을 받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굳이 한국사회에 사는 가정에서는 화교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말에서도 필자가 추측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후에 자식들이 한국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라고도 생각된다.

지금 한국에 생활하고 있는 화교들은 현지에 머물고 정착하려는 의지가 더 크고 자기의 몸에서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이러한 민족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가는 것보다 현실의 삶에 직면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이로써 세대가 지나면서 민족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인 정신의 측면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화교의 2세대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결국 한국사회에 동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하고 있다.

화교 2세대와 달리 화교 3, 4세대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지도와 민족적 특징이 갈수록 퇴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화교 3, 4세대들은 한국을 생활하는 근거지로 여기고 중국을 자신들이 언어와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

41) 김태만 위책, P.170

### 3.2 세대 간 인식

화교 1세는 거의 중국 산둥성 출신이고 한국에 정착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가려는 마음이 크다. 때문에 한국말도 배우지 않고 항상 이국에 있다는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가정의 영향으로 화교 2세는 화교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면서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하며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화교 3, 4세대로 이어지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국가관과 민족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지금 거의 60%의 화교 3세대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고 국적의 취득과 가정교육도 다원화되고 있다.

담정희 : 저는 없었어요(정체성). 그리고 확고하죠. 내가 인식하기 싫어도 한국 사람들이 나보고 “떠놈, 떠놈” 하니까 “아! 내가 떠놈이구나”했죠.<sup>42)</sup>

허우진 : 내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이라고 하지 뭐. 미국에 있으니까 민족 개념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sup>43)</sup>

우덕호 : 저희 딸도 물어보면 “한국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1998년 딸이 한국에서 태어날 때 한국국적법이 원래는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법이 바뀌어 아버지, 어머니 다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딸 그리고 아들이 이중국적인데 딸은 22세, 아들은 18세 되면 국적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쪽을 생각하면 중국(대만)국적을 포기하구요. 중국(대만)을 생각하면 한국국적을 포기 할 꺼고요. 18세정도 성인이 되어 자기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요.<sup>44)</sup>

42) 김태만 위책, P. 200

43) 허우진 : 1929년 8월 13일 서울 출생. 대만국적. 화교2세. 現 부산화교협회 고문. 김태만 위책, P. 143

담정희 : 하도 엄마가 강조하니까요. 사실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옆에서 가르쳐주니까 지금은 중국인이라고 알고 있어요.<sup>45)</sup>

화교 2세대까지는 스스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가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도 그러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담정희는 "저는 없었어요(정체성). 그리고 확고하죠. 내가 인식하기 싫어도 한국 사람들이나보고 '띄놈, 띄놈' 하니까 '아! 내가 띄놈이구나'했죠"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있어서 확고하고 중국어도 더 잘하고 중국(대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지금보다 많았다.

그러나 화교 3, 4세대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소속감을 느낀다. 허우진은 "내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이라고 하지 뭐. 미국에 있으니까 민족 개념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와 우덕호의 "저희 딸도 물어보면 '한국사람'이라고 해요"라는 말에서도 화교 3, 4세대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화교가 한국 여성과 결혼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와 오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먼저 접하게 되고 한국말을 하게 된다. 앞쪽의 총용자의 인터뷰에서는 농구시합의 예로 화교 1, 2세대와 3, 4세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화교 1, 2세대는 자신이 조국을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팀을 응원하고 있다. 반면 3, 4세대들은 그러지 않다. 자신이 잘 알고 관심을 갖는 쪽을 응원한다. 이는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떠나서 스스로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감정상으로는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접촉한 문화나 언어 면에서는 거의 한국학생들과 비슷하다. 화교학교를 다니고 있는 화교들은 학교에서 중국인이라는 개념을 각인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자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환경에 따라 인식이 다를 수도 있다, 어릴 때부터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중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하게 되면 거의 정체성 혼란 없이 '나는 중국인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써 자식들은 자기의

---

44) 김태만 위책, P. 169

45) 김태만 위책, P. 197

정체성과 소속에 대하여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정서상으로는 나는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은 한국과 더 가깝고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더 많을 것이다.

우덕호 : 세대별로 다릅니다. 제가 정리한 저의 정체서는 저는 한국 화교(韓僑)예요. 중국 사람이지만 100퍼센트 중국 사람은 아니구요. 100퍼센트 대만사람도 아니구요. 100퍼센트 한국 사람도 아니구요. 그게 제가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중국에 가면 동포라고 합니다. “동포가 오셨습니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국적이 대만이라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대만에서 10년 동안 공부했고, 심지어 군대까지 자원했어요. 저는 대만과기대 나왔어요. 또 군대는 자원을 했는데 안가도 되지만 대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10년 사귄 저의 대만 친구가 저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대만사람들도 저희들을 대만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화교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화교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sup>46)</sup>

총용자 : 지금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의 화교들은 외국 유학과 사업 등의 편리를 위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무비자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어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게 되었어요. 이런 등의 원인으로 3,4세 화교들은 귀화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 크네요.

주변 환경도 화교 3, 4세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록 화교학교에서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화교 3세대인 우덕호는 "세대별로 다릅니다. 제가 정리한 저의 정체서는 저는 한국 화교(韓僑)예요. 중국 사람이지만 100퍼센트 중국 사람은 아니구요. 100퍼센트 대만사람도 아니구요. 100퍼센트 한국 사람도 아니구요"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定意)하고 있다. 아마 지금 화교 3, 4세대들 속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나 대만에 갔을 때 중국인으로

46) 김태만 위책, P. 168

보지 않는 경우 이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이국땅에서 같은 문화와 언어를 습득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왔는데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래 동안 생활해온 한국에서도 계속 이방인의 취급을 받고 있으니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갈수록 화교 3, 4세대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혹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할 것이고 한쪽을 택하여 정착해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총용자는 "지금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의 화교들은 외국 유학과 사업 등의 편리를 위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무비자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어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화교는 현지에 동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되고 화교도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지금 화교 2세대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은 타인과 주변 환경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와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화교 후세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주변 사회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강제적으로 선택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자기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현지사회와 조화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 3.3 결혼 인식

화교 1세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보통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역을 중심으로 왕래를 하다가 중국 내의 국공내전으로 중국 내륙과 단절되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화교 1세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화교 2세대가 태어나게 된다. 화교 1세대는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등한 대우와 배제를 받아왔고 이를 화교 2세대도 같이 겪어왔다. 그러나 화교 1세대와 달리 화교 2세대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사회를 먼저 접촉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애착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일민족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회와 보수적이고 내부 응집

력이 강한 화교들과 혼인을 맺는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화교 2세의 결혼도 70년대와 80~90년대에서 분기점이 생긴다.

진승리 : 7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화교들이 많았으니까 화교들끼리 결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중국인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인 경우가 그보다 적었는데 80년대 지나고 90년대 되니까 한국인 배우자 둔 사람이 훨씬 많아요. 85%~90%는 한국 부인이야. 한국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을 사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수가 증가하게 됐죠.<sup>47)</sup>

시기에 따라 변화나 일어나고 있다는 원인은 70~80년대에 화교들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제한과 일련의 규제로 가장 가혹한 압박을 받은 시기이고 이 때 이러한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화교들은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시대 때 한국사회에서는 화교의 경제발전을 견제하면서 화교가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수교이후 화교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화교 1세대와 달리 화교 2세대들은 한국사회와 더 많은 접촉을 하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적응하려고 한다. 진승리는 "90년대 되니까 한국인 배우자 둔 사람이 훨씬 많아요. 85%~90%는 한국 부인이야. 한국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을 사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수가 증가하게 됐죠"라는 말에서도 사뭇 짐작이 간다. 그리고 대학 입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교회나 일을 하면서 한국인과 더 많은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혼인이 쉽게 성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허진우 : 안된다고(결혼).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는 처갓집을 샀어요. 거기서 이틀 있었어요. 시골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반대를 하던지. 전부 다 안된다, 나 이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내려왔죠. <sup>48)</sup>

우덕호: 반대(결혼) 많이 하셨죠. 지금은 이해해주시는데 저희 와이프가 광주 안씨

47) 진승리 : 1952년 5월 5일 부산 출생. 대만국적. 화교2세대. 김태만 위책, P. 232

48) 김태만 위책, P.141



집안이거든요. 또 할아버지께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셨고 아버님은 동아대 법대 나오셨구요. 그 당시에 동아대 법대를 나오고 할아버지께서는 밀양에서 교장선생님이셨으니까 집안이 대단한 교육자집안이어서 “안씨 집안에 어떻게 뗏놈이 들어올 수 있어”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셨어요.<sup>49)</sup>

담정희 : 집사람은 한국사람입니다. 나이차이는 한 살 나구요. 결혼할 때 반대 심했는데요. 저의 집도 그렇고, 집사람 집도 그렇구요. 지금도 반대합니다.<sup>50)</sup>

위의 사례에서 보면 허진우는 "안된다고(결혼).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는 처갓집을 갔어요. 거기서 이틀 있었어요. 시골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반대를 하던지. 전부 다 안된다"라고 했고 우덕호는 "집안이 대단한 교육자 집안이어서 '안씨 집안에 어떻게 뗏놈이 들어올 수 있어'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셨어요"라고 했으며 담정희는 또 "결혼할 때 반대 심했는데요. 저의 집도 그렇고, 집사람 집도 그렇구요. 지금도 반대합니다"라고 과거에 이러한 결혼을 거의 양가집이 모두 반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화교 2세의 결혼에 대하여 처음은 양가에서는 거의 심한 반대를 하다가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결국은 인정을 받고 화목하게 사는 편이다.

과거에 심한 반대 속에서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한 화교 2세대와 한국인 부부는 자식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하여 보다 오픈 마인드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유인 "한국대학을 많이 다니니까 접촉하는 게 전부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결혼 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와 진승리는 "우리 애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참 개방적이에요. 자기만 좋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단지 자기만 좋다면 누구나 좋죠"라며 자식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러한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다. 자식들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지지하고 반대를 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49) 김태만 위책, P.167

50) 김태만 위책, P.197

<표 - 5> 한국 화교의 타민족과 결혼 여부에 대한 연령별, 성별, 교육별, 직업별 반응 분포<sup>51)</sup>

변인	변인구분	반응구분					합계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연령	10대 후반		15(7.5)				35(17.5)
	20대	12(6.0)	19(9.5)	1(0.5)			30(15.5)
	30대	8(4.0)	20(10.0)	1(0.5)		7(3.5)	25(12.5)
	40대	5(2.5)	42(21.0)	4(2.0)	5(2.5)	2(1.0)	66(33.0)
	50대	12(6.0)	17(8.5)	2(1.0)	1(0.5)	3(1.5)	26(13.0)
	60대	3(1.5)	11(5.5)	3(1.5)		3(1.5)	14(7.0)
	70대	1(0.5)	1(0.5)	1(0.5)		1(0.5)	3(1.5)
	80대						1(0.5)
성별	남	26(13.0)	72(36.0)	4(2.0)	3(1.5)	6(3.0)	111(55.5)
	여	15(7.5)	53(26.5)	8(4.0)	3(1.5)	10(5.0)	89(44.5)
	합계	41(20.5)	125(62.5)	12(6.0)	6(3.0)	16(8.0)	200(100.0)

<표 - 6> 자녀 배우자의 희망국적<sup>52)</sup>

자녀 배우자의 희망국적	빈도(명)	구성비(%)
한국화교	20	21.7
한국인	28	30.4
중국인	4	4.3
대만인	11	12.0
다른 나라 화교	9	9.8
기타 외국인	17	18.5
자녀 생각대로	3	3.3
소계	92	100.0
무응답	18	-
계	110	-

<표 - 5>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교가 타민족과 결혼하는 경우를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6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 - 6>에서는 자녀의 희망배우자의 국적에 관해서 한국인과 결혼시키려는 비율이 30.4%로서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갈수록 화교들은 후세들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51) 윤녕, <한국 화교의 정체성 연구 - 부산지역 화교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P. 44,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석사학위논문

52) 이종우, 위 논문, P. 85

생각하고 있는 태도와 동시에 지지하는 양상도 보인다.

이유인 : 지금 사실 결혼하는 것 보면 거의 한국인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교 들끼리 별로 접촉을 안하면, 중매 안하면 잘 안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한국대학을 많이 다니니까 접촉하는 게 전부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결혼 하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옛날에는 아주 배타적인데 한국분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가 있느냐 특히 화교 여자가 한국 남자를 맞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한국 집에 시집가는 화교 여성들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남자가 한국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더 많고요.<sup>53)</sup>

진승리 : 우리 애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참 개방적이예요. 자기만 좋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단지 자기만 좋다면 누구나 좋죠.<sup>54)</sup>

총용자 : 지금 화교들은 거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화교 3세는 거의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이다. 화교의 60% 이상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요. 한국 여성, 아니면 한국 남성과 결혼을 많이 해요. 이런 원인으로 애가 태어나면 한국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되니까.

갈수록 이러한 가정이 늘어 날 것이다. 부모들도 이런 결혼을 더 이상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이러한 결혼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적취득이 쉬워지면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화교들은 편의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화교 2세대들도 자식의 국적 취득에 간섭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유 선택 하도록 한다. 화교 3세대들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보다 강한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한국어도 더 잘 한다. 이러한 변화를 화교사회에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현지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겪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에 동화되어 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

53) 김태만 위책, P.227

54) 김태만 위책, P. 232

### 3.4 문화 인식

叢협회장은 ‘화교가 있는 곳이면 화교학교가 있다’고 말했다. 이만큼 화교는 자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은 한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교의 중국어 습득환경이 세대별로 달라지고 있다. 1세대들은 중국에서 태어나 물론 중국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상태이다. 2세대도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고 화교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화교 1세와 다른 것은 한국어까지 할 수 있는데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규교육에 편입되어 한국어로 일차 사회화가 진행된 화교 3, 4세는 중국어 구사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중국문화를 접하는 빈도가 낮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전통문화습득에도 많이 뒤쳐진 상태에 처해 있다.

허우진 : 대부분이 중국어는 잘 안되고, 한국말은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딸래미(화교끼리 결혼) 쪽 손자 손녀들은 중국말 알고 한국말은 모르고, 우리 아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들은 한국말하고 영어 두 가지 쓰고.<sup>55)</sup>

우덕호 : 저의 딸은 부산사투리를 너무 잘하고 중국어 못해요. 그래서 화교학교로 보냈습니다. 어릴 때 딸은 장모님께서 키우셨거든요. 장모님께서도 한국분이시니까 할머니에게 부산말 그리고 주위 환경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제가 생각할 때 중국어도 배워야 향후 취직에 도움이 되니깐 화교 학교로 보냈습니다.<sup>56)</sup>

이유인 : 중국애들까지도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한국 사람인 아이들이 많아요. 화교인데 엄마가 한국분이고 아빠는 중국 사람인데도 집에 가면 중국말을 안 쓰고 전부 한국말을 쓰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게 학교에 일단 들어오면 한국말을 하면 안된다. 학교에 들어오면 무조건 중국어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애들끼리 한국말로 통하니까

55) 김태만 위책, P. 143

56) 김태만 위책, P. 167

일일이 그게 할 그게 안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sup>57)</sup>

범염명 : 지금 화교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일부러 중국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 왜냐면 그들의 모어는 이미 거의 한국말로 되어버렸어. 내가 학생들과 말 할 때 학생들은 내가 한 말을 머릿속에서 먼저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과 교류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뒤 이해하고 교류를 한다. 상황이 서로 반대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모어가 한국어로 되면서 최초로 형성되는 인식과 접촉하게 되는 문화가 한국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도 하다. 허우진은 "대부분이 중국어는 잘 안되고, 한국말은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딸래미(화교끼리 결혼) 쪽 손자 손녀들은 중국말 알고 한국말은 모르고, 우리 아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들은 한국말하고 영어 두 가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우덕호는 "저의 딸은 부산사투리를 너무 잘하고 중국어 못해요, 어릴 때 딸은 장모님께서 키우셨거든요. 장모님께서도 한국분이시니까 할머니에게 부산말 그리고 주위 환경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라는 말에서 화교 3, 4세대들이 태어난 가정환경과 성장해온 주변의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화교 3, 4세대에게 있어서는 한국어를 잘 하고 중국어를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화교사회에서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사뭇 위험하고 걱정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화교사회가 한국 땅에서 계속 존속해 나갈 수 있는 것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화교의 학교나 내부의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세들에게 중국의 민족정체성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은 학교를 떠나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무조건 중국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왔고 범염명도 학생들과 교류를 할 때 거의 중국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오래 동안 생활해 오면서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중국어의 구사능력 수준도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

57) 김태만 위책, P. 219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습득도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하기보다는 향후의 생계를 위한 도구로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유인 : 지금은 한국 집에 시집가는 화교 여성들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남자가 한국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엄마들이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거의 태반입니다. 중국 아빠, 중국 엄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많이 하니까 수업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죠.

우덕호: 목적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요 중간에 아마 제 생각에 대만이나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미국으로 보내려고요. 경제상 좋으면 미국 보내고, 아니면 대만으로 가서 확실하게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다시 고등학교 될 때 한국 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취직하려면 한국에서 대학 다녀야 하니까요.<sup>5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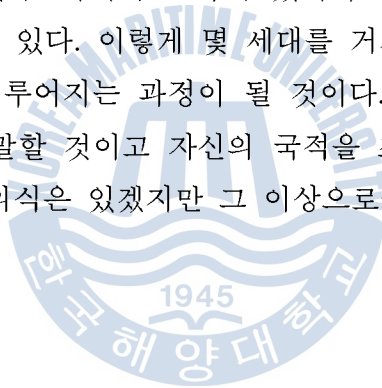
화교가 자녀를 화교학교에 보내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의 습득이 아니다. 이유인이 지금 화교와 한국인이 결혼하는 현상이 거의 태반이고 자식들을 화교학교에 보내는데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덕호도 역시 자식을 집안 형편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으로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소재의 대학에 보내려가 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다시 향후의 진로나 한국에서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딛는 디딤돌 역할이기도 하다.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에서 이중 언어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아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통일하고 쓰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화교 3, 4들의 모어가 한국어가 되는 경우도 당연히 많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생활해온 화교 3, 4세대들은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 范 교장선생님의 인터뷰에서 지금 화교중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는 동안 한국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수업도 모두 중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를 떠나면 중국어를 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화교 2세 때는 방과 후 수 백명의 학생이 청관거리에서 중국어로 말하며 집으로 가는데 지금은 그런 경관을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 범염명

---

58) 김태만 위책, P.168

은 가끔 학생들과 교류를 할 때 중국어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중국어를 머릿속으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나서 다시 중국어로 말한다. 이로써 한국어는 1차적 언어로 되어버리고 중국어가 제2의 언어로 되어버렸다. 또한 갈수록 중국어 구사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도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나 부모의 압력 하에 중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중국인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중국전통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떨어지면서 중국어의 습득도 일종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대만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 하는 학생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 소재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화교사회가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면서 국가관이나 정치관에 대하여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다원적이고 국적선택에도 자녀 의지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몇 세대를 거치면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것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단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화교 였다.’라고 말할 것이고 자신의 국적을 초월하여 정신적인 측면에서 ‘나는 중국인’이라는 의식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더 많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 4. 부산화교의 미래

### 4.1 화교내부의 교류와 소통

한국화교는 가장 먼저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국에 가장 오래 동안 생활해온 소수자 집단이기도 하다. 화교의 역사는 무려 한 세기가 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화교도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사회구성원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화교 1세대가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부터 화교 2, 3, 4세대까지 이어왔다. 그리고 화교 1세대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 화교 2세대들을 보면 우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이 형성되어 있고 화교사회 집단에 대하여 소속감이 강하다. 반대로 화교 3, 4세대로 넘어가면서 정체성의 인식과 화교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는 이국땅에서 오랜 세월을 생활해 오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민족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인터뷰자료들을 통하여 부산의 화교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화교 사이에서 “전라도 화교, 경상도 화교 사이 안 좋다”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부산화교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화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앞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오랜 세월동안 정착해온 한국화교 외에도 신(新)화교와 조선족들도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신화교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자면 과거에 단순한 노동이주가 아닌 어떤 목적성을 갖고 유학이나 고학력을 지닌 자의 사회진출을 가리키고 있다.

서울의 중화총상회에서는 한국화교, 신화교와 조선족들이 함께 모여 한·중



내지 세계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나 부산 화교 2세대의 말에 의하면 부산에는 아직 이러한 모임이 없고 평시에는 부산 화교들 사이에서 하는 모임에만 참가하고 아주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더 많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가 힘들 것이고 이로써 화교의 발전에도 아주 불리하게 될 것이다.

우선 부산 내부에서라도 이러한 폐쇄적인 공간의 벽을 무너뜨려야 하고 화교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화교단체를 운영하는데 윗사람들의 말이 무조건 맞다하기보다 아랫사람들의 견해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교 후세들이 화교 집단 모임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탈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화교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화교의 세대별로 맞게 모임을 만들어 화교 한명 한명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하고 단체에 대한 애착을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다단계로 올라가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유기적인 소통과 상호에 대한 배려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화교 세대 간 사이에서의 소통도 시급하지만 새로 들어온 중화권의 사람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한국화교 내부의 응집력도 강화할 수 있고 한국 내에서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화교와 신화교, 그리고 조선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임의 주축은 현지에 있는 한국화교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현지의 한국화교가 이러한 단체를 이끌어가야 입지도 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 들어온 중화권의 사람들은 여기를 생활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언젠가가 떠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운영방침이 필요하다. 이래야만 세대가 지나도 운영가능하면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더 나아가서 한국 기타의 지역과 연계시켜 세계의 화교들과도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도전을 시도

한다. 화교들의 일련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고 화교로서의 긍지감이 회복되면서 지금 저조한 한국사회의 화교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끌어올릴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4.2 한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

한국은 단일민족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지만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등의 이주가 잦아지면서 한국도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화교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소수 민족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가 타 민족에 배타할 만큼 화교사회도 아주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한 나라에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로서 세계의 자유화 경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화교와 한국인이 결혼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부부의 한쪽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와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매일 접촉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 가족에서 두 나라의 정체성이 띄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부부가 서로의 문화를 완전 이해를 하거나 한쪽에서 모든 것을 가만해야 이루어지기 가능한 가정이다.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의 이유 한 가지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와의 접촉에서는 아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화교들의 가족 속에서 정기적으로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러나 화교와 한국인 여성이 결혼 할 경우에는 이 모임에 참가할 수가 없다. 그 이유도 단순히 어머니가 화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비록 언어와 문화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화교 1세대와 달리 그 다음세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여성을 모임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또한 화교사회의 배타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화교가족이라면 이러한 모임에 참가하는 자격이 충분하다. 한국여성이든 화교여성이든 모두 한 화교가족이 아닌가? 또한 어머니들은 후세 양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에서 서로 의논하고 경험을 전수하는데 좋은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화교 후세대들을 양성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교단체에서도 한국인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많은 교류를 진행한다면 서로 더 이해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도 본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돌고 있는데 화교와 결혼한 한국여성이나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조금의 회비를 거두면서 정기적으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인에게 중국어도 가르치고 중국문화도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양나라의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몰랐던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점들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매년 6월에 부산역 앞과 상하이 거리에서 며칠 동안 차이나타운 축제를 진행한다. 축제에서는 주요 중국의 전통문화, 전통 춤과 노래를 감상하는 것과 중국식 마사지를 체험하고 중국식 전통 음식을 싼 값으로 시음할 수 있는 등의 항목들이 있다. 이러한 축제는 화교와 한국시민들이 어울리는 장이기도 하고 축제기간 동안만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했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예전대로 돌아간다. 축제에서 볼거리와 먹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직접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들도 만들어 내야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다도(茶道)체험, 서예 체험, 태극권, 중국요리 만들기 체험, 중국관광지에 관한 설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자기가 관심된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러한 수업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자연적인 교류와 유대가 생기면서 한국 사람은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고 이는 또 화교들을 위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서로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화교는 한·중문화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화교들도 자신감도 회복하고 화교라는 프라이드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같이 사는 한국 땅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해야만 더 좋은 삶을 창조해 낼 수 있고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다. 한국사회가 화교사회를 안아주고 잘 보듬어 주어야 자기의 특성을 잃지 않은 채 계속 한국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화교는 한국에서 100여 년 동안 정착해 오면서 한국사회의 소수자로서 많은 차별 정책을 받아왔다. 그러나 화교 1, 2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왔다. 화교인구수가 적은 원인으로 경제력의 응집 능력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한계가 있었다. 동남아 화교들처럼 거대한 경제력도 갖추지 못했고, 미국과 유럽의 화인들과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와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보면 한국화교사회는 자기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화교는 최초로 육로를 이용한 해외이주의 서막을 열었다. 100년 넘게 한국사회에서 생활해오면서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보존해왔고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70년대 말 세계 각 지역의 화교학교는 거의 현지화의 교육과정을 밟았지만 한국의 화교학교는 현지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교가 있는 곳곳마다 화교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세계화교, 화인의 90%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지역화교와 달리 한국화교는 의연히 모국의 정치적 관념을 지니고 있고 화교 1, 2세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현지에 동화되지 않았다. 화교 2세까지 현지에 동화되지 못하는 것은 화교1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세는 언제든지 모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때문에 한국말도 배우지 않고 현지에 동화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화교 1세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있어 자녀들을 거의 화교학교에 보내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과정을 거의 겪지 않았다.

70년대 한국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제한 정책으로 화교들이 많은 피해와 박해를 받았다. 토지개혁으로부터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과 화폐개정, 그리고 요식업을 주로 경영하는 화교들의 쌀밥 판매금지령으로 등으로 일련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써 화교들의 생활과 경제력이 점점 쇠락해갔다. 이어 경제

력이 괜찮은 화교들은 제3국으로 이주를 많이 가게 되었다.

90년대 들어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했고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화교정책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무역의 발전에서도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화교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왔고 화교가 중간에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화교는 '한류'의 중국진출과 무역의 거래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오면서 대를 이어 가고 화교 3, 4세대까지 이어왔다. 이런 한국사회에서 생활해오는 과정 속에서 화교 1, 2세와 3, 4는 국가개념, 민족의식과 정체성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에 순응하고 익숙해져가지만 한국사회에 완전하게 동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역시 화교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화교의식은 화교가 대를 거칠수록 추상된 측면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화교 1, 2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이 있지만 3, 4세에 들어서면서 정체성에 대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지금 화교2세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1997년 '국적법'의 수정으로부터 2002년 영주권의 부여와 함께 화교들이 한국사회에 보다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앞의 인터뷰 내용에서 화교 2세들이 보고 있는 화교 3, 4세는 국가개념이나 민족의식이 거의 없다.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한다. 부모님들도 자식의 국적취득 문제와 정체성에 대하여 강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르는 것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리고 화교학교를 다니는 것도 더 이상 국가의 전통문화와 언어의 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를 위하여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과 화교라는 개념이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화교와 한국인이 결혼하면서 당연히 생긴 것이라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중국인 취급을 받고 중국과 대만에서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 속에 빠졌다.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화교 3, 4세는 1, 2세와 달리 높은 학력을 취득하여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출세한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가개념이나 정체성의 인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중국어의 구사능력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배우고 있다. 화교사회는 이런 젊은 화교세대의 문제가 앞으로의 화교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참고 문헌

###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중규, <韓國의 華僑 居住地 研究 - 仁川 地域을 中心으로->, 서울: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김종원, <부산의 도시 성장에 대한 역사 지리학적 고찰 : 개항~해방까지를 중심으로>, 서울: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박은경, <화교의 정착과 이동: 화교의 경우>,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1.

이진석,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변화와 사회 자본화>, 부산: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李東旭, <開港以後 釜山の 租界地에 關한 考察>, 부산: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종우, <韓國 華僑의 現地化에 關한 研究 - 釜山 居住 華僑를 中心으로>, 부산:동아대학교 동북아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李在正, <韓國의 華僑 居住地域研究 - 仁川을 中心으로->, 서울: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인닝, <한국 화교의 정체성 연구: 부산지역 화교사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부산: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추미란, <在韓 華僑의 企業經營에 對한 實證的 研究>,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김나영, <기획논문: '해항도시와 국가의 길항' ; 부산 차이나타운의 가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성과 국가주의 간의 길항>, 역사화 경제 78권, 경남사학회, 2011.

한동수 · 박철만, <부산 淸國租界地의 필자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중국학연구 64권, 한국중국학회, 2011.

전우용, <한국 근대의 화교 문제>, 한국사학보 제15호, 고려사학회, 2003.

안미정,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역사와 경제, 부산경남사학회, 2011.

이용재, <한국의 대화교정책과 배제의 역학>, 중국어문학논집, 제72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안미정, <일반논문: 부산화교의 이주를 통해 본 '전쟁'과 가족 >, 石堂論義,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1.

이성우 · 고금석 · 류정호, <인종간 결혼의 결정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6집 제6호, 한국사회학회, 2002.

이범수, <인천 화교의 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 인천학연구 제9호, 인천대학교 인천연구원, 2008.

## 단행본

김태만, 《내안의 타자 부산차이니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2009.

양필승 · 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 한국 화교의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釜山市史》,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 외국문헌자료

晁中辰, 《旅韓華僑華人的歷史與展望》, 當代韓國, 山東大學歷史文化學院教授, 2000.

趙璣璿, <韓末의 國際貿易> 經濟協會, 日併刊號, 1972.

詹小洪, <韓國華僑의 今昔>, 炎黃春秋2004年第7期, 海外史, 2004.

## 신문자료

국제신문, <차이나타운 부활 꿈꾸는 부산화교협회 총용자 회장>, 2010, 2, 25.

국제신문, <체험·볼거리는 풍성했지만, 주인공 빠진 차이나 축제>, 2012, 6, 24.

부산일보, <초량부두 '청관거리' 120년 역사 품고 '상해 거리'로 변모>, 2010, 1, 6.

## 사이트

부산화교협회 <http://www.crabk.com.ne.kr/>

부산화교 중학교 <http://kbchs.com.ne.kr/>

부산광역시 문화 관광 홈페이지 <http://tour.bsjunggu.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http://www.immigration.go.kr>

한국중화총상회 <http://www.kccci.or.kr/>